

## 한국 웹툰 ‘동물툰’에 나타난 힐링의 이데올로기

유인혁\*

1. 들어가며
2. ‘무조건적인 사랑’과 힐링
3. (자기)돌봄과 (자기)훈육, 그리고 힐링
4. 나가며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동물툰을 중심으로, 비인간 동물과 힐링 담론이 결합/재현되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동물툰은 동물의 양육 경험을 다루는 한국 웹툰의 하위장르를 일컫는 용어다. 동물툰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및 ‘힐링’이라는 세속적 자기계발 담론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적, 학술적 담론은 동물이 주는 심리적, 신체적 혜택을 의미하는 ‘반려동물 효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담론 속에서 생산되고 강화되는 문화적 실천인 동물툰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동물툰에서 동물이 인간의 ‘힐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창작학부 조교수

\*\* 이 연구(발표)는 2024학년도 전주대학교 정착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Jeonju University in 2024.)

\*\*\* 이 연구는 대중서사학회 2024년 4월 13일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값진 토론을 해주신 서은영 선생님 및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양상을 살펴보았다. 많은 동물툰에서 인간은 동물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특성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심리적 이득을 얻는 존재로 나타났다. 이때 동물툰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기능했다.

3장에서는 동물툰이 인간의 자기 통제를 강조함으로써 힐링 담론을 강화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최근 동물툰은 동물을 돌보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인간은 강력한 자아를 '회복'한 후 동물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로 묘사된다. 이때 동물툰은 궁극적으로 주체적 인간의 형상을 강화하는 내러티브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한국 동물툰이 '반려동물 효과'를 재생산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동물툰이 치유 담론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동물툰이 인간의 '힐링'을 위해 동물을 동원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힐링 담론이 복잡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방식을 재구성했다.

(주제어: 동물툰, 힐링, 반려동물 효과, 인간/비인간 관계, 비인간 동물의 재현)

##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동물툰'을 중심으로 비인간 동물과 힐링 담론이 결합/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동물 재현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 안에 아로새겨져 있는 힐링의 이데올로기와 반려의 윤리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툰이란 주로 동물을 양육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한국 웹툰의 하위장르다. 원칙적으로 동물툰은 동물이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는 모든 웹툰을 말한다. 즉 동물 형태로 표현된 인간이 나오는 작

품<sup>1)</sup>이나 반대로 동물이 의인화되어 등장하는 이야기<sup>2)</sup> 등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반려 관계를 직접 다루는 웹툰 등을 한정하여 바라볼 것이다. 이러한 일군의 재현물들이 단순히 동물을 소재로 삼은 텍스트들보다 반려동물의 존재, 효과, 인간과의 관계성 등을 보다 극적인 형태, 즉 서사화된 형태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작품들은 <탐묘인간>(2011~2013), <내 어린고양이와 늙은개>(2011~2013), <노곤하개>(2017~2021), <뽀짜툰>(2013~), <개를 낳았다>(2018~), <무지개다리 파수꾼>(2020~) 등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인간과 동물의 반려 관계를 다루고 있는 픽션/논픽션 웹툰이다. 이들은 네이버 웹툰 및 카카오 웹툰 등 대중적 플랫폼에서 일정한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동물툰의 대중성은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2020년 말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sup>3)</sup> 한국 인구의 상당 부분은 비인간 동물과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동물과 동거하지 않는 '비반려인'들도 왕왕 원격현전(tele-presence)된 동물들과 만난다. 현재 TV와 같은 대중 미디어는 다양한 동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SBS의 <동물농장>(2001~)은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 그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는 기획의도를 가지

1) 아트 슈피겔만의 <쥐>(1991)와 같이 인간을 짐승처럼 표현한 작품들을 말한다.

2) <라이언 킹>(1994)처럼 동물이 일종의 인격을 가진 행위자로서 표현되는 작품들을 말한다.

3) 황원경·손광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1쪽.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160> 검색일: 2024.03.30)

고 있는데,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시청층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2010년대 후반에 가시화된 ‘뷰니멀(view+animal)’족은 “다양한 이유로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기는 어렵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를 즐기며 대리만족을 느끼며 온라인을 통해 같이 양육하는 간접적인 체험”을 즐기는 인구를 가리킨다.<sup>4)</sup> 이는 현재 비인간 동물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가로지르며 상당한 사회·문화·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반려동물 문화에 아로새겨진 힐링 담론이다. 여기서 나는 ‘힐링’을 ‘(몸이나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여,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경제적 실천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힐링은 좋은 삶을 의미하는 ‘웰빙’(well-being)의 뒤를 잇는 세속적 자기계발 담론으로 출현했으며<sup>5)</sup>, 곧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대한 키워드”<sup>6)</sup>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힐링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며, 일상생활의 전방위적인 소비의 한 형태이자 경향으로서 자리 잡았다.

반려동물에 대한 담론 역시 이러한 ‘힐링’이라는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확산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증가는 “1인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및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가족, 친구,

4) 양문희, 「반려동물 유튜브 인기 채널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31권 3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115쪽.

5) 신윤천, 「웰빙의 새로운 진화 ‘힐링 브랜드’」, 『마케팅』 제47권 7호, 한국마케팅연구원, 2013, 34~35쪽.

6) 김은준, 「초기 힐링담론의 자기통치프레임과 담론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39쪽.

공동체와의 연결고리가 열어지면서 증가한 정서적 결핍을 채워줄 대상을 찾게 되었다”<sup>7)</sup>는 사회적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지언과 양지훈에 따르면 한국 언론에서 반려동물이 다뤄지는 방식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호 동물의 종류나 동물 전염병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로 넘어가면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대한 동물의 유익한 효과를 다루는 이른바 ‘반려동물 효과’(pet effect)와 관련된 기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sup>8)</sup> 한편 김명희·천성문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의 심리에 대한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많이 연구된 변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8편), 애착(7편),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3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이 독립변인으로 설정됐을 때 정신건강(4편)과 우울(4편)이 종속변인으로 많이 설정되었다. 매개변인으로는 사회적지지(4편), 자아존중감(3편) 순으로 나타났다.”<sup>9)</sup>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연구가 인간 보호자의 정서적 상태와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양문희는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콘텐츠의 소비심리를 분석하는 가운데, 그것이 “대리만족, 정서적 치유와 같은 심리적인 차원의 동기”<sup>10)</sup>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증했다.

정리하자면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술적·사회적·문화적 담론들은 반려동물이 인간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 및 애착관계의 긍정적 효과를 다루는

7) 이용숙,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짓기」, 『한국문화인류학』 제50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 338쪽.

8) 김지언·양지훈·윤정원·양지연, 「반려동물 관련 언론보도의 토픽분석 및 반려동물 효과의 정량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2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26쪽.

9) 김명희·천성문,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동향 분석」, 『재활심리연구』 제29권 4호, 한국재활심리학회, 2022, 30쪽.

10) 양문희, 앞의 글, 118쪽.

경향이 크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의 양육을 통해 향상된 긍정적인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성 등과 같은 소비자의 정신적·신체적 힐링에 영향을 줄 것”<sup>11)</sup>이라는 기대가 감지된다.

동물툰은 이러한 담론 속에서 생산되며, 또한 이러한 담론을 강화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예를 들어 동물툰 〈개를 낳았다〉의 첫 번째 화(네이버 웹툰, 18.06.07)는 착취적인 노동환경을 견디다 소진(burn out)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서술자가 강아지를 입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개를 만나기 전의 일상을 흑백으로, 개를 만난 후의 삶을 칼라로 채색하는 연출기법을 사용했다. 이는 “무채색이었던 작가님의 세상이 개를 만난 후에 색깔이 생긴 것을 보니 작가님의 땡땡이가 정말로 작가님께 큰 의미였었나봐요”와 같은 독자의 댓글을 끌어냈다. 여기서 ‘각박한 현대사회’, ‘소진된 청년’, 그리고 반려동물은 삼각형의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동물툰은 반려동물 효과(pet effect)를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은 한국 동물툰이 반려동물 효과를 재생산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이다. 반려동물 효과는 결국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활용하여 심리적 편익을 취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개발 및 계발을 위해 자연을 식민화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문제적인 지점은 이러한 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물질적이며 사회적인 관계의 차원에 존재한다. 도나 해러웨이에 따르면 “개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나 “개를 자식으로 대하며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와 인간 모두에게 가학적”이다. “개가 무조건적 사랑의 환

11) 홍재원·문재영·엄승섭,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 힐링, 양육충성도의 관계 연구」, 『의료경영학연구』 제9권 1호, 경영연구원, 2015, 51쪽.

상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면 버려질 위험”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sup>12)</sup> 즉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관계는 비인간 동물에게 유기라고 하는 생존 문제를 야기하며,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자기상을 마주해야 하는 도덕적·윤리적 위기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 글은 한국 동물툰이 ‘힐링’을 목적으로 동물을 동원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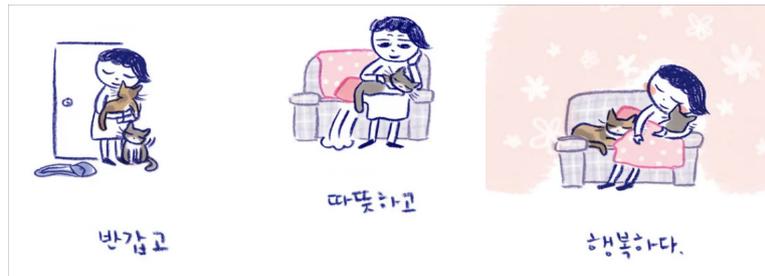
둘째, 이 글은 동물툰이 힐링 담론을 비판적으로 강화하는 지점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 많은 동물툰은 동물에 대한 정서적인 의지를 지양하고,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인간은 비인간 동물을 통제하기 위해 자기통제의 심리적 기술들을 익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정신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즉 인간-비인간의 긍정적 관계가 긍정적인 자기개발의 결과로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동물툰의 힐링 담론이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통제를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로 이러한 지점을 조망함으로써, 힐링 담론이 복합적으로 문화적 실천 속에 스며드는 양상을 재구성하겠다.

## 2. ‘무조건적인 사랑’과 힐링

이 장에서는 동물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대(expectation)라 할 수 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겠다. 동물의 사랑스러움은 동물툰을 비롯하여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관심을 추동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

12)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9, 158~164쪽.



〈그림 1〉 〈탐묘인간〉 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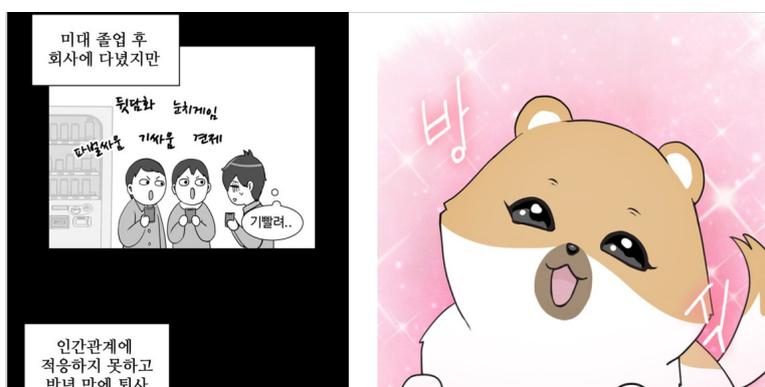
위 그림은 웹툰 〈탐묘인간〉<sup>13)</sup>의 첫 화의 일부를 편집·발췌한 것이다. 1화에서 서술자는 자신의 반려묘가 침대 위로 부지불식간 뛰어들거나 가전 제품을 발톱으로 훼손하고, 옷가지에 달라붙은 털 때문에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윽고 고양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하는 컷들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그림 1〉에서 인간과 고양이의 물리적 밀접성은 정서적 친밀성(intimacy)을 연출하는 장치다. 그리하여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동거는 사랑의 일상으로 재현된다.

한편 〈탐묘인간〉의 댓글은 이러한 사랑과 친밀성의 느낌이 독자들의 주된 기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사용자 리카르도는 “당신에게 고양이가 없다는건.. 이런 고양이가 없다는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 익명의 사용자는 “다른사람들(고양이를 안좋아하거나 관심없는사람)은 이해못하죠. 손이 많이가고애교도없고 귀찮고 털 때문에 고생하고 무섭고... 암튼 뭐가 좋냐고. 키우는 사람만 알죠. 귀찮고 성가시고 다 맞는데 받는 행복이 더 크기때문이라고. 그림체도 그렇고 내용도 완전 맘에드네요+\_+”라는 반응을 남겼다.<sup>14)</sup> 이외에도 독자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

13) soon, 〈탐묘인간〉, 카카오 웹툰.

14) <https://webtoon.kakao.com/viewer/%ED%83%90%EB%AC%98%EC%9D%B>

험, “공감”, “힐링”같은 단어들을 통해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표시했다. 종합해보자면 <탐묘인간>의 가장 큰 쾌락은 인간과 고양이의 친밀한 관계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사랑스러움의 느낌 자체에 있다.



<그림 2> <개를 낳았다> 1화

한편 동물툰에서 동물의 사랑스러움과 친밀성은 인간사회의 특징과 대조적인 것으로 연출되기도 한다. <그림 2>는 <개를 낳았다><sup>15)</sup>의 1화 일부를 편집·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인간관계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그녀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지만 ‘사내정치’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고통받았다. 한편 주인공은 퇴사 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는데, 착취적인 구조의 산업 속에서 시달린 끝에 “나 자신이 다 닳아버린 것 같은 느낌”, 즉 소진(burn out)의 상태에 도달했다. 그녀는 일에 몰입해서 살았기 때문에 “만날 사람은커녕 전화할 만한 친구”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려짐승>(2023~)의

8%EA%B0%84-002/13929 (2024.04.02. 접속)

15) 이선, <개를 낳았다>, 네이버 웹툰.

주인공 역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를 겪는 인물로서 나타난다. 그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직장 상사와의 불화 때문에 퇴사하고 프리랜서가 되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를 구조하여 기르며 내면을 치유하고 인간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sup>16)</sup>

이러한 서사에서 동물은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할 존재로서 등장한다. <그림 2>에서 개는 초면의 인간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에서 개는 웃음이라는 인간적 감정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projection)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출은 동물을 사랑스러움이라는 본성을 가진 존재이자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위자로 위치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재현은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신정인과 강영걸에 따르면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 등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보여주는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존재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안전감을 느끼며, 이는 사회적 지지로서 작용”<sup>17)</sup>한다. 즉 동물은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손상이나 결핍을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상상되고 있다. 즉 동물은 인간사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간을

16) 래형, <반려집승>, 네이버 웹툰; <반려집승>의 경우 주인공이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 개와 동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갖게 되었다. 이 웹툰은 주인공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동물의 반려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17) 신정인·강영걸, 「동물매개치료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적용적 함의」, 『특수교육재활과 학연구』 제55권 1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6, 191~214쪽; 이나라, 「반려동물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3권 4호, 한국상담심리학회, 2021, 1774쪽에서 재인용.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저구는 내 가족이 되었다.

<그림 4> <보짜툰> 4화(좌), <개를 낳았다> 1화(우)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인간과 비인간이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림 3>은 각각 <보짜툰>18)과 <개를 낳았다>의 초반 장면을 편집·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비인간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언명하거나, 혹은 자신을 '엄마'로서 정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주인공이 자신의 정서적 교류의 반력으로서 비인간 동물을 상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과 비인간의 만남은 마치 인간 파트너끼리의 만남이 그러하듯이 '첫눈에 빠진 사랑'으로 연출된다. 강력한 감정적 결속과 유대를 가진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다음이다.

이러한 가족 만들기의 서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물을 가족으로 삼는 서사는 그 밑바탕에 자

18) 채유리, <보짜툰>, 카카오 웹툰.

연의 식민화 양상을 전제하고 있다.<sup>19)</sup> 근대적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길들인다.<sup>20)</sup>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특수한 방식으로 대상화하는 행위<sup>21)</sup>여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식민관계<sup>22)</sup>를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자면, 동물툰은 인간이 동물을 특정한 감정적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이야기로 다시 읽힌다. 많은 사회학적 연구들은 반려동물의 증가가 ‘현대인의 소외’의 확산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3)</sup> 이는 달리 말하자면, 동물이 인간의 감정적 문제를 아웃소싱하는 상품으로서 이용된다는 뜻이다. ‘반려동물 효과’라는 용어는 결국 동물(pet)이 실제 경제적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속성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인물들이 해결책으로서 동물을 만날 때 극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둘째,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사랑’은 얼마든지 파행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신규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290,958마리다.

19) 이는 근래 인간-비인간(동물) 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논쟁에는 서구 근대의 뿌리깊은 종차별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때 “동물은 수성을 지닌 존재로 상징화되고 피지배 대상”으로 환원된다. 특히 근대는 “인간 우위와 동물 열위의 관계”를 확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서사 속의 동물을 인간적 가치를 재현하는 표상으로서 읽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근대적 세계에 대한 대항적 대안적 내러티브로서의 기획”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촉발하기도 했다. (송다금, 「한국 서사 장르의 동물 담론 연구: 비판적 동물 연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13쪽.)

20) Yi-Fu Tuan, *Dominance & Affec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3.

21) 자연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자연을 미적으로 응시하는 행위는 모두 인간(남성)의 관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근대인의 관점과 태도에 아로새겨져 있다. (질리언 로즈, 정현주 옮김, 『페미니즘과 지리학』, 한길사, 2011, 211~234쪽.)

22) 마리아 미즈·반다나 시바, 『에코 페미니즘』, 손택주 역, 창비, 2020, 128쪽.

23) 이용숙, 앞의 글, 338쪽.

21년에는 총 500,321마리가, 19년에는 총 797,081마리가 등록됐다. 그리하여 누적 반려견의 숫자는 2022년 현재 3,025,859마리로 집계되었다. 한편 실태조사는 2022년에만 유실·유기동물이 총 113,440마리 구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20년과 19년에는 각각 약 13만 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이것은 인간이 '구조'한 동물의 통계로서 실제 유실·유기동물의 숫자는 더 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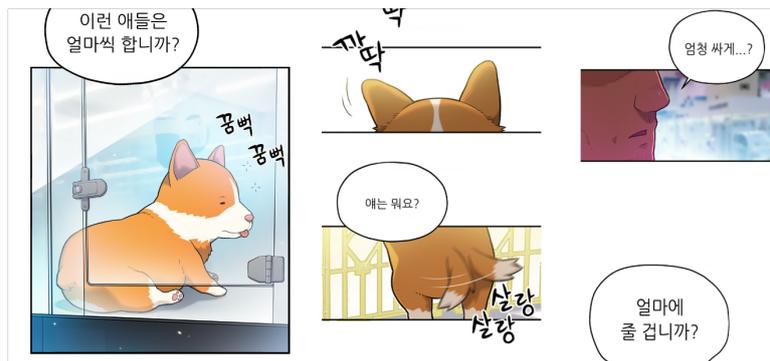
한편 구조된 동물은 다음과 같은 운명을 겪었다. 즉 입양 31,182마리(27.5%), 자연사 30,490마리(26.9%), 소유주 반환이 14,031마리(12.4%)다. 그리고 '인도적 처리'가 19,043마리로 전체 16.8%를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총 22,076개소로 21년 대비 6.7%증가”한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 현황’, “22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총 893명, 운영비용은 294.8억원이며 평균 보호기간은 26일”이라는 정보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sup>24)</sup> 여기서 우리는 반려동물이 삶을 만들어 내는 정치/자본과 함께 죽음으로 이어지는 정치/자본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툰은 이러한 ‘비인도적’인 상황을 비판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림 4>에서는 동물이 사랑의 상품이 된 양상을 다루고 있다. <무지개다리 파수꾼><sup>25)</sup>의 1화에서 강아지는 낯선 인간에게 꼬리를 흔들며 본능적인 호감을 표현하고, 이는 곧바로 구매자의 소비욕을 자극한다. 하지만 뒤에 전개되는 에피소드에 따르면 이 웰시코기 종 강아지는 주인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개를 낳았다>의 1~2화는 주인공이 “뜰장에서 사육하면서 강아지를 대량생산시키는 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구매’하

24) <2022 동물관련 실태조사 및 국민의식조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3&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5000000019&seq=300100](http://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3&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5000000019&seq=300100), 2024.04.02. 접속)

25) 이서, <무지개다리 파수꾼>, 카카오 웹툰.

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무지개다리 파수꾼〉 (1화)

종합하자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는 권력적으로 비대칭적이다.<sup>26)</sup> 그리하여 인간이 사랑의 능력을 타고난 동물을 보호하는 서사는 얼마든지 폭력적인 방식으로 변주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에 매혹되었으면서도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며, 나아가 파괴하는 근대적 인간의 성질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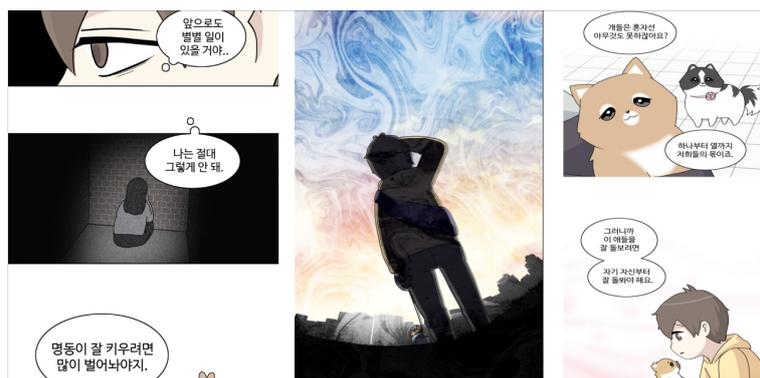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동물들은 모순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생명 정치·경제·문화 복합체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으로 동물들은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비인도적인 맥락들을 적극 비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동물의 사랑스러운 본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를

26) 이때 권력관계는 감정적·정동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신 야오는 백인-남성이라는 규범적·근대적 인간이 인종적·젠더적 타자를 감정적이며 정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포착했다. (Xine Yao, *Disaffected: 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ineteenth Century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2021) 권명아의 정리에 따르면 이러한 근대인은 정동가능한(affectable) 대상에 마음껏 정동하는(affective) 역량의 주체를 보여준다.(권명아, 「보편적 어펙트 연구 비판과 젠더·어펙트 연구」, 『사이間SAI』 제33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70쪽.)

강화하고, 비인간을 착취하는 경제적·문화적 여건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 3. (자기)돌봄과 (자기)훈육, 그리고 힐링

앞 장에서 우리는 동물툰이 동물의 사랑스러움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것을 착취하는 산업과 문화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기서 동물툰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부작용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문화적 텍스트들은 담론이나 이데올로기 안에서 생산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동물툰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은 역설적으로 힐링 담론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더 자세히 말해 동물툰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강조하는 가운데, 통제력을 가진 건강한 자아의 복원(healing)을 전면화한다. 그럼으로써 자연을 통제하는 인간의 역량과 책무를 강조한다.



〈그림 6〉 〈개를 낳았다〉 9화, 12화

〈그림 5〉는 〈개를 낳았다〉의 9화와 12화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이다. 이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주인공 김다나가 반려견 명동을 잃어버린 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기 전 김다나는 수술비가 없어 강아지를 유기한 반려인을 만났다. 이는 김다나의 반려동물에 향한 책임감을 강화했다. 돈 때문에 강아지를 적절히 치료할 수 없거나, 최악의 경우 유기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림 5〉의 왼쪽 이미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의 중간 이미지는 김다나가 명동과의 산책 중에 혼절하는 장면이다. 김다나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과도한 업무를 맡았다. 그녀는 침식을 잊어가며 일에 매달렸다. 명동의 유사시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에 기초한 책무감은 혹독한 자기착취로 이어졌다. 그래서 김다나는 산책 중에 혼절했고, 의식을 잃은 사이 명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김다나는 명동을 되찾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고통받아야만 했다.

〈그림 5〉의 오른쪽 이미지는 명동을 되찾은 김다나가 좋은 보호자의 진정한 책무에 대해 깨닫게 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여기서 김다나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쳤다. 그녀의 조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들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저희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 애들을 잘 돌보려면 자기 자신부터 잘 돌봐야해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돌봄의 책무다. 자기돌봄은 비단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오랫동안 돌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태도다. 이때 반려인이 된다는 것은 반려동물의 애착을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반려인은 한 존재의 생사여탈을 온전히 담당하며 두 반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

해 재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책무는 사랑 그 자체만큼이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림 7〉 〈개를 낳았다〉 55화

〈그림 6〉의 그림들은 〈개를 낳았다〉의 등장인물 주희가 강아지 주주의 분리불안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주희는 1인 가구인 직장인인데, 정서적인 위안을 받고 싶어서 반려견 주주를 입양했다. 그런데 주희는 반려동물이 생긴 이후 정서적으로 더욱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은 직장인인 주희가 집에 없을 때마다 주주가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주희는 무책임한 반려인의 표본이다. 그녀는 반려동물의 사랑을 욕망할 뿐,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는 반려견의 심리적인 불안과 이상행동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민은 그녀를 “왜 아무것

도 안 해요?”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반려견을 방기한 것은 작게는 이웃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면서 넓게는 전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행동으로 묘사된다. (“그쪽 때문에 여기도 개 금지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다. <그림 6>의 난장판이 된 집은 주주의 불안을 표현하는 경관이다. 여기서 반려인의 무책임은 자기 자신과 반려동물, 그리고 주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부도덕에 다름 아니다.

이후 주희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반려견을 파양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게 된다. 다만 그녀는 주주의 실종사건을 경험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게 되고, 이후 긍정적인 반려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이때 주희가 기울이는 노력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요청하는 것, 장기간 회사를 쉬면서 주주의 분리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훈련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애견유치원’과 같은 동물용 탁아기관에 주주를 맡기는 등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개를 낳았다>의 서술자는 다른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주희의 1인 가구라는 ‘생활 환경’의 특수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sup>27)</sup>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책무(burden)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인간이 높은 수준의 경제적·사회적·도덕적 책임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비대칭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비인간 동물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비인

27) “주희씨 그렇게 풀파워로 달리다간 쓰러져요.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이선, <개를 낳았다> 60화, 네이버 웹툰)

간 동물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갖춰줘야 하며, 나아가 인간 및 공동체와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예절(manner)을 학습시키는 책임을 전적으로 갖는다. 요컨대 인간은 동물의 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질적·정신적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sup>28)</sup>

이러한 스토리텔링 속에서 강화되는 것은 바로 근대적 인간의 형상이다. 동물툰에서 긍정적인 반려인은 자연을 통제하는 인간이다. 그는 반려동물의 비사회적인 행동들을 교정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는 동물에게 필요한 품성(인내, 비공격성)이나 예절(짓는 행위, 물건을 물어뜯는 행위의 조절)을 학습시켜야 한다. 이때 반려인은 자연을 지배하는 근대적 주체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적 주체는 자연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의 본성 역시 통제한다. 예컨대 <개를 낳았다>에서 주희는 본래 정서적으로 의존할

28) 반려인의 책임감은 실로 많은 독자들의 정동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동물툰의 중심 소재다. 이를테면 <푸들과 Dog거중>(최뽕뽕, <푸들과 Dog거중>, 네이버 웹툰)은 '가로 의 사회성 기르기', '짓지마!'와 같은 이름의 에피소드를 통해 훈육 과정을 서사화한다. 이러한 서사 안에서 인간은 개가 다른 개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예절(manner)을 학습시키는 일, 개의 짓고자 하는 본능을 억제하여 인간 중심의 거주환경에 적응시키는 일 등의 책임을 가진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노곤하개>의 '냥줍에 대해서' 에피소드(홍끼, <노곤하개> 62화, 네이버 웹툰)는 유기묘를 입양하는 과정을 조명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인간 동물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인간의 책무를 강조한다. ("줍다'에도 책임이 따른다고양!") 그리고 독자들은 그러한 책임에 따르는 물리적·정신적 어려움에 공감한다. <푸들과 Dog거중> '짓지마!' 에피소드의 댓글창에는 통제 되지 않는 반려동물 때문에 고통 받았던 경험을 토로하거나("푸들이 원래 목청이 좋아서 집때내려가도록 짓음 우리도 옆집한테 경고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님", Isz4\*\*\*\*), 반려동물 교육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계몽적 댓글(혹 데려왔다 하더라도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견주님들의 노력인거 아시죠??, cher\*\*\*\*)이 달렸다. 한편 <노곤하개>의 '냥줍에 대해서' 에피소드 댓글창에는 "진짜 고민해봐야될 문제인거 같아요 애완동물을 키운다는게 생명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ㅎㅎ", "냥줍도 가정분양도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니 정말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데려오길 바라요!!" 같은 댓글이 달렸다. 여기에는 인간/동물 관계에서 인간의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중화되었음이 나타난다.

대상을 찾기 위해 주주를 ‘구매’했다. 그러나 주희는 주주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쌓으며, 자기 자신의 정서적 불만족을 다스리고, 자신의 노동시간과 사생활의 밸런스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났다. 그녀는 반려동물 주주의 이상행동을 교정함으로써 노동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나아가 보다 나은 노동자가 됨으로써 주주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는 주희가 자기훈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자기통제는 자기돌봄과 연결되어 있다. <개를 낳았다>는 적절한 자기재생산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라는 실용적인 조언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서사를 통해 구현된다. 김다나와 주희는 모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효용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의 능력을 가진 개들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아웃소싱’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녀들은 자기와 반려동물을 적절히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획득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했다. 즉 자기 훈육을 통해서 자기 회복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동물툰이 복합적인 층위에서 ‘힐링’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동물툰은 우선 사랑스러운 동물들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동물과 인간 사이의 정서적 애착을 재현함으로써 ‘힐링’을 수행한다. 동물툰의 독자들은 인간사(人間事)에서는 불가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며 거기에 강력한 감정을 이입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물툰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인간상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동물툰은 사랑과 헌신에는 반드시 통제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속에서 인간은 반려동물을 훈육해야 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훈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로 설정된다. 그

리하여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sup>29)</sup>이기보다는, 강력한 자아를 구축한 다음에야 비로소 행복한 동거를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서사에서 힐링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비인간-자연에 대한 통제와 돌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의 주체가 된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동물툰의 ‘힐링’ 서사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동물로부터 위안을 찾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일련의 동물툰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인간은 동물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성격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심리적 편익을 취하는 주체다. 한국 동물툰은 동물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간-비인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3장에서는 동물툰이 인간의 자기 훈육을 강조함으로써 ‘힐링’ 담론을 강화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최근의 동물툰은 동물을 돌보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인간은 강력한 자아를 ‘회복’한 뒤, 동물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려진다. 이때 동물툰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주체성 강화를 서사화하고 있다.

동물로부터 위안을 얻고, 동물을 보호하는 서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적인 함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며,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조언한다.<sup>30)</sup> 하지만 이러한 삶은 결국 인간의

2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518836&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518836&searchKeywordTo=3), 2024.04.13. 접속)

30) Laurie Ouellette와 James Hay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실천들은 우리 스스로를 개

비인간 동물에 대한 시혜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사랑과 훈육의 주체로서 인간은 비인간 동물의 생사여탈에 대한 책임을 가져간다. 이러한 시선은 동정과 책임감에 기초한 ‘백인 남성의 책무(white mans’ burden)’ 같은 제국주의 모델의 판박이로서, 비인간 동물에 대한 제국주의적 식민화의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이 동물튼을 이데올로기의 수동적인 반영물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적 텍스트는 시대적·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거기에 완전히 종속된 것도 아니다. 많은 동물튼이 동물을 힐링의 도구로 타자화하며, 인간-비인간 관계의 비대칭성을 강화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동물튼은 바로 그러한 담론의 초월 가능성 역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많은 동물튼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동물들을 보살피는 인간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 어린고양이와 늑은개><sup>31)</sup>는 시각 장애가 있는 고양이와 고령으로 신체 기능을 거의 상실한 개를 돌보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비인간 반려동물들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거나 인간을 유능하게 만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의존적이다. 이때 동물들은 말 그대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선하라고 명명하는 ‘자율적’인 통치성의 작동양상을 보여준다. Laurie Ouellette & James Hay, “Makeover television, governmentality and the good citizen”, *Contuuma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Vol.22, No.4, 2008, 471-484; 주혜원은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서, EBS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KBS의 <개는 훌륭하다>를 문화콘텐츠에 의해 촉진되는 “라이프스타일 거버넌스와 일상적인 자기 관리 통치방식”의 구체적 사례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변신시키는 것과 비인간 타자를 변신시키는 것 사이의 유사성을 탐색하고 있다. (주혜원, 「좋은 반려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BS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KBS2 <개는 훌륭하다>의 반려견 훈련사의 문화매개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4권 4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19쪽.)

31) 초, <내 어린고양이와 늑은개>, 네이버 웹툰.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짐(burden)을 끌어안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힐링 담론을 (재)생산하면서, 바로 그러한 담론적 경계를 넘어서는 역동성을 발휘한다. 여기서 인간과 비인간의 비대칭적 관계는 뚜렷하다. 비인간-동물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대등한 반려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안에서 반려동물 효과는 억제된다. 동물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편익을 주기보다는, 경제적·정신적 투자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를 돌보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요컨대 동물툰은 실로 복잡한 문화적 양상을 서사화하고 있다. 동물툰은 인간이 어떻게 동물을 심리적·경제적 편익을 위해 동원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물툰은 비인간을 미적·정서적으로 대상화하면서도 이타적(selfless)이며 이해를 초월한 인간의 모습, 불완전하며 의존적이지만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resource)으로 환원되지 않는 동물의 모습 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들은 동물툰이 힐링 담론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근대적·자본주의적 인간의 형상을 (재)생산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개념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서사적 복잡성을 가시화하는 것은 힐링 담론 및 인간-비인간 관계에 대한 대안서사<sup>32)</sup>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평의 작업을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32) 손혜정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자연'의 표상이 근대 특유의 '자율성'에 대한 환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손혜정, 「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 메멘토, 2024, 191쪽.) 한편 수나우라 테일러는 의존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관념을 넘어서, 서로를 “서툴고 불완전하게” 돌보는 인간-비인간 관계의 상상력을 제시했다. (수나우라 테일러, 『짐을 끄는 짐승들』, 이마즈 유리·장한길 역, 오월의 봄, 2020, 362쪽.) 이러한 사유들은 인간-비인간 관계의 새로운 윤리와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래형, <반려짐승>, 네이버 웹툰  
최뽀뽀, <푸들과 Dog거중>, 네이버 웹툰  
이서, <무지개다리 파수꾼>, 카카오 웹툰.  
이선, <개를 낳았다>, 네이버 웹툰.  
채유리, <보자툰>, 카카오 웹툰.  
soon, <탐묘인간>, 카카오 웹툰.

### 2. 논문과 단행본

권명아, 「보편적 어펙트 연구 비판과 젠더·어펙트 연구」, 『사이間SAI』 제33권, 국제  
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51~182쪽.  
김명희·천성문,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동향 분  
석」, 『재활심리연구』 제29권 4호, 한국재활심리학회, 2022, 25~36쪽.  
김은준, 「초기 힐링담론의 자기통치프레임과 담론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4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38~71쪽.  
김지연·양지훈·윤정원·양지연, 「반려동물 관련 언론보도의 토픽분석 및 반려동물 효  
과의 정량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2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26~39쪽.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9.  
마리아 미즈·반다나 시바, 『에코 페미니즘』, 손덕주 역, 창비, 2020.  
손혜정, 「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 메멘토, 2024.  
송다금, 「한국 서사 장르의 동물 담론 연구: 비판적 동물 연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  
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수나우라 테일러, 『짐을 끄는 짐승들』, 이마즈 유리·장한길 역, 오월의 봄, 2020.  
신정인·강영걸, 「동물매개치료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적용적 함의」, 『특수교육재활과학  
연구』 제55권 1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6, 191-214쪽.

- 신윤천, 「웰빙의 새로운 진화 '힐링 브랜드」, 『마케팅』 제47권 7호, 한국마케팅연구원, 2013, 34~42쪽.
- 양문희, 「반려동물 유튜브 인기 채널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31권 3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111~139쪽.
- 이나라, 「반려동물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3권 4호, 한국상담심리학회, 2021, 1773-1791쪽.
- 이용숙,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짓기」, 『한국문화인류학』 제50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 337~403쪽.
-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2011.
- 추혜원, 「좋은 반려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EBS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KBS2 <개는 훌륭하다>의 반려견 훈련사의 문화매개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4권 4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17~29쪽.
- 홍재원·문재영·엄승섭,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 힐링, 양육충성도의 관계 연구」, 『의료경영학연구』 제9권 1호, 경영연구원, 2015, 49~56쪽.
- 황원경·손광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 Laurie Ouellette & James Hay, "Makeover television, governmentality and the good citizen", *Contu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Vol.22, No.4, 2008, pp.471-484.
- Xine Yao, *Disaffected: 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ineteenth Century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2021.
- Yi-Fu Tuan, *Dominance & Affec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3. 기타 자료

- <2022 동물관련 실태조사 및 국민의식조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3&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5000000019&seq=300100](http://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3&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5000000019&seq=300100), 검색일: 2024.04.02.)

## Abstract

### The Ideology of Healing Represented in Korean Animal-toon

Yu, Inhyeok(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presentation of non-human animals and healing discourses are combined in Korean animal-toons. The term 'animal toon' refers to a subgenre of Korean webtoons that mainly deals with the experiences of raising animals. It grew up in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 of the so-called 'The age of 10 million of pets' and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phenomenon of "healing" as a secular self-improvement discourse. The popular and academic discourse of companion animals is organized around the 'pet effect' which refers to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benefits of the animals. Animal toons are a cultural practice that is produced within and reinforces this discourse.

In Chapter 2, I examined animal toons that feature humans finding solace in animals. In these narratives, humans are the ones who endow animals with the characteristic of 'unconditional love' and derive psychological benefits from it. Korean animal toons have reinforced this human-nonhuman economic relationship by portraying animals as 'the lovable' but on the other hand, Korean animal toons also point to the problem of human psychological exploitation of animals. Recent animal toons are eager to reproduce the catastrophe that can occur when animals fail to live up to expectations of lovability. In Chapter 3, I explored the ways in which animal cartoons reinforce discourse of 'healing' by emphasizing human self-discipline. More recent animal toons tend to emphasize the agency of humans in caring for animals. Humans are portrayed as agents who are able to establish positive relationships with animals after 'recovering' a strong

self. The discourse of healing of animal toons ultimately narrativizes the strengthening of human agency.

This study critically reflects on the ways in which Korean animal toons reproduce the 'pet effect', and examines the ways in which animal toons critically reinforce discourse of healing. In doing so, it critiques the ways in which Korean animal toons mobilize animals for healing purposes and reconstructs the ways in which discourse of healing permeate complex cultural practices.

**(Keywords: animal toon, healing, pet effect, human/non human relationship, representation of non-human animal)**

논문투고일 : 2024년 5월 15일

논문심사일 : 2024년 6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6월 19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20일